

위기의 도시 문화연구 재문맥화

후기 피스크 비판적 공간 사유와의 접선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이 논문은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가 채 극복하지 못한 탈문맥화 한계를 도시 일상 위기 현실로의 산책을 통해 극복하려는 테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은 자본국가의 지배 통치하 위험에 처한 삶의 문제를 적극 사유하고 체험하기 위해 문화연구자들이 당장 산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일종의 전황 파악과 산개 기술로서의 산책이다. 논문은 오늘날 대중문화가 처한 위기 양상들이 일상적으로 표출되고 징후적으로 표현되는 도시로 걸음을 옮겨 참여 관찰하고, 이를 글쓰기로 옮기는 현실 개입주의를 문화연구 재맥락화의 정답으로 결론 맺는다. 이에 앞서 연구자는 능동적 수용자 이론가로 분류·정리된 존 피스크의 말기 비판적 공간 산책에 주목한다. 그가 산책 개념을 빌려온 드 세르토로부터 나아가 공간 전술을 실제로 실천한 마셜 버먼의 작업을 돌아본다. 텍스트와 수용자의 울타리를 초월해 도시 공간의 콘텍스트로 나아가는 문화연구의 궤적을 그려 보는 것인 바, 이는 단순히 피스크가 남긴 대안적 흔적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자본주의 현실과 비판적으로 관여하는 도시 공간 미디어 문화연구의 흐름을 재구성하기 위함이다. 피스크에게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절단된 사유와 방법론의 공백을 채움으로써, 도시와 대중들의 위기 현실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문화연구 재문맥화의 전망을 찾아볼 것이다.

KEYWORDS 탈문맥화, 도시 공간, 전술, 산책, 공간적 실천

* 이 글은 2014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정기학술대회에서 먼저 발표되었으며, 그때의 논의와 비판을 토대로 수정된 것이다. 정확한 지적과 생산적 제안을 준 이희은 교수, 한선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1. 재난의 도시 공간 현실, 문화연구의 탈문맥화¹⁾ 위기

도시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구성되며 미래를 조망하는 포인트다. 위기의 생애가 노출되고 생명의 역능이 발견되는 다의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배와 저항, 착취와 억압, 봉쇄와 점령, 우울과 희망의 실천들이 시시각각 도시 공간을 교차한다. 빈번하게 재난이 발생하고, 잇달아 죽음이 초래되며, 다행스레 구조가 진행된다. 이런 현실 공간인 도시는 자본주의 위기 시간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비판적인 동시에 생성적인 현실문화연구의 필수적 개입 지점, 결정적 착지점이 된다. 현실 관찰의 망루. 문화정치적 착종 표면. 당대 지배 현실을 징후적으로 독해하고 모순 현실에서 변화 가능성까지 발굴해 내는 문화연구가 도심을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도시 공간 산책²⁾은 이론 구성의 트랙이자 연구 조사의 경로이며 정치 실천의 방도가 된다. 도시에 펼쳐진 위기의 삶이 문화연구를 요구할 때, 문화연구는 그 현실의 요청에 당연하게 응대한다.

문제는 당위와 실재의 현저한 편차다. 문화연구는 도시 공간에서 표출되는 생명 위기의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오직 일시적으로, 소극적으로, 부차적으로만 답한다. 신자유주의 자본국가의 프로그램이 도심에 집중되고 위기·위험의 문화가 도처에 산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괴리와 간극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자본국가에 의한 문화 살해를 방임하면서 위험 상태로부터 현저히 유리된다. 미디어 문화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미디어 문화연구는 한마디로 현실문화의 장이자 대중생활의 무대인 도시에서 사실상 격리되어 있다. 도시 공간을 자본국가의 문제, 삶/문화의 주제와 결속된, 마누엘 카스

1) 문화연구의 탈문맥화에 대해, 본인은 문화연구자가 글쓰기를 실천하고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한국이라는 사회 조건과 자본주의 정치경제, 현대사라는 역사 문맥을 간과하는 문제적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텍스트의 세계만 반복해 말하면서 이를 둘러싼 콘텍스트의 문제로는 나아가길 불편해하는 무기력, 무능력을 가리킨다.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는 대중들의 삶 즉 대중문화의 위기 현상에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구제(救濟)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정치적 무감각을 포함한다. 세월호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문화연구는 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 본인은 이를 문화연구 탈문맥화의 핵심 문제로 지적코자 하는 것이다.

2) 이 글에서 '산책'은 결코 복고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전술적 개념이다. 다소 한가롭게 들릴 수 있는 '산보'라는 용어 대신에 이 말을 선택한 이유다. 산책은 한가로운 행보가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섬광처럼 반짝이는 이미지와 스킵은 기억, 돌출한 현상을 낚아채 붙드는 인식적이고 행위적인 모험이다. 역사 기록, 현실 채굴의 공간 실천적 기술로서 풀이될 것이다. 소설가, 역사가, 저널리스트, 민속지학자, 고현학자, 현실문화연구자가 개발하여 각자의 자취를 남기는 사유와 현실 사이의 인터코스(intercourse), 즉 교통의 행위로 정리된다. 산책을 통해 우리는 시중 잡인들의 삶이 펼쳐지는 일상성으로 나아간다. 거기서 현실의 모순과 모순을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나아가 타개의 방법까지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참여의 정치윤리를 다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산책은 현실과의 적극적 교전, 현재와의 능동적인 관여에 다름 아니다. 모순/현실과 작가/연구자의 자발적 여입 활동이라고 하겠으며, 저자는 바로 이런 산책이 피스크와 버먼 그리고 세르토를 위시하여 여러 문화연구자들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실천되었는지를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텔(Manuel Castells, 1983)이 말한 ‘사회의 근본적 물질 중 하나’로 천착하지 않는다. 결국 지배와 적대의 모순이 빚어지고 죽음과 생존의 재난이 펼쳐지는 현실 맥락으로부터 등 돌린 채, 미디어=문화의 협의한 영토에 스스로를 유펬시킴 이론적 계토로 전락했다.

사회적 대 파국이자 문화적 대형 재난인 세월호 이후에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성찰과 각오의 담론이 일회적으로 오가지만, 결과는 몇 편의 논문 발표로 수렴되면서 미동에 그치고 만다. 미디어 문화연구는 여전히 텍스트에 머문다. 현실의 위기·재해의 삶이 지속되는 도시라는 미디어, 콘텍스트로서의 도시로 나서지 못한다. 비극이 끊이지 않고 목숨이 줄줄이 유실되며 구원의 아우성이 난무하는 삶의 무대, 일상의 전경인 도심으로 나가지 않는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도시에 당당히 나타난 파시즘의 폭력, 전체주의의 전조를 두고서도 그 어떤 비판적, 실천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무능력이다. 시대가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철저히 무응답으로 침묵하는 지적·정치적인 무책임성의 상태. 미디어/텍스트/재현/담론/분석이라는 요새 내부에 연구의 거처를 정하는 안이함. 테러라는 대형 재난 이후 미국 문화연구자들이 보여 준 현실 대면의 긴장감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³⁾

도시 공간으로 걸음해 삶의 재난 상태를 목도하고, 파국을 초래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조망하고 삶의 희망과 가능성까지도 찾아내며, 이를 기록과 예표(prefiguration)의 글쓰기로 옮겨 내는 문화연구 실천. 이 논문은 그 기예와 윤리, 감각을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 탈문맥화 성찰 및 재문맥화 실행의 구체적 방도이자 처방으로 제안한다. 삶의 문맥 속으로 걸음을 해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산책자의 예리한 감각과 안목으로 위기의 표면을 짚어 본다. 그 관찰과 경험의 원료를 갖고 자신과 타자가 공유하는 위기의 생애와 희망의 삶을 이야기로 옮긴다. 베냐민은 이야기한다는 것이 영혼과 눈과 손의 동일한 상관관계로 구성되는 “결코 목소리만의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193쪽)고 했는데(반성완, 1983), 여기에 나는 발걸음(footage)을 덧붙인다. 이 시대 진정한 의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3) 가령,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2003)는 재난을 취급하는 미디어의 왜곡된 표상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테러 폭력에 의해 살해된 타자에 대한 면목(face)없음에서 싹트는 애도 능력/가능성(grievability)을 강조했다. 불법 수용소는 물론이고, 미국사회 전반과 도시 전체에 걸친 감금의 통치 상태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삶을 가능케 할 조건들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의무와 윤리적 결단을 요구한다(Butler, 2009). 한편 수잔 벅 모스(Susan Buck-Morss, 2003)도 테러 상황을 비판적으로 넘어서기 위한 전 지구적 좌파정치, 공적 영역의 구성 필요성을 시급하게 제안했다. 한편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 2004/2006; 2009/2012)은 재난의 도시, 도시의 파국에서 생존의 기술을 발견해 내고자 했다. ‘어둠 속 희망’ 찾기. 폐허를 시민사회 구성과 진보운동 성찰의 조건으로 접하면서, 현장에서 문화주의의 새로운 사유와 글쓰기를 정리한다. 9·11 이후 나타난, 재난의 시기 미국 문화연구가 채택한 재문맥화의 중요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위험이 발생하고 희망이 건조되는 일상의 공간인 도시를 활보하는 걸음이 필수적인 까닭이다.

이 땅의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은 왜 재난의 시간에도 도시(문화연구)로 나서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재난의 조건을 방기하며, 탈문맥화의 한계를 강화하고 마는가? 미디어 문화연구가 지닌 구조화된 습속의 단면인가? 그렇다면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 미디어 문화연구의 지탄받을 만한 폐해인가? 기실, 미국 문화연구와 미국에서 수학한 국내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자본주의 위험 현실로부터 유리된 채 텍스트와 수용자의 기호학적 민주성, 능동적 저항성에 몰두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존 피스크(John Fiske)는 영국 문화연구 연성화, 개량화, 협의화의 비난을 잔뜩 덮어썼다. 문화연구 탈정치화의 주역으로 꼽혔다. 그는 탈문맥화의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문화연구가 늘 불편하게 도망치고자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였다. 피스크류 문화연구의 망령을 극복하는 게 탈문맥화의 길이라는 도식이 자리 잡았다. 과연 그러한가? 피스크가 문제인가?

일방적 평가와 고착된 인상에 맞서, 이 논문은 도심 재난 상황에 대한 피스크의 의외의 비판적 관심을 새로이 조명한다. 그는 TV문화의 경계를 넘어 위기의 삶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자본국가 지배와 대중문화 위기의 영토인 도시에서다. 왜 피스크는 도시로 나갔고, 거기서 무엇을 목도했는가? 그가 지속했어야 할 작업은 무엇이며, 우리가 발전·승계할 과제는 또 어떤 것이었나? 피스크는 어디서 멈췄고, 우리는 어디에서 그와 어긋났는가? 논문은 이런 질문들에 자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피스크를 재론하는 것은 탈문맥화를 피스크류 미국 문화연구의 탓으로 돌리는 공리가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에게서 문화연구 재맥락화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⁴⁾ 피스크는 미디어 문화연구의 한계와 가능성

4) 왜 하필이면 피스크이고, 왜 지금 새삼 피스크인가 하는 당연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이 논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제시의 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은 간단하다. 피스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바로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한다. 현실과 문화연구의 위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의 한국에서다. 피스크는 오늘날 우리가 참담하게 목도하는 위기 현실을 앞서 체험하고 그것을 글쓰기로 남겼다. 그 흔적의 사유를 비판적으로 채굴해 독해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과 갈 길을 보다 지혜롭게 구상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말 그대로 극복의 대상인 피스크는 재난 상황에 관한 사건적 글쓰기으로써 바로 지금 한국의 상황, 한국문화연구의 상황으로 재귀한다.

기실, 피스크는 한국(미디어) 문화연구의 배치와 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따라서 한국(미디어) 문화연구를 탈문맥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할 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좌표가 된다. 피스크의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직 파편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 공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은 이 문제적인 좌표를 다시 면밀하게 응시코자 하며, 그에게서 재맥락화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향후 문화연구 재구성의 결기는 이전 활동의 성찰에 기초하는 바, 피스크의 명철한 이해는 그로부터 개시되다시피 한 한국(미디어) 문화연구의 새로운 좌표설정 작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연구자의 생각이다.

을 반사하는 이중거울이다. 이 글은 피스크의 단절적 극복이 아닌 비판적 지속이 재난의 시대 미디어 문화연구 현실화의 길이라는 논지를 펼쳐볼 것이다.

2. 도시 공간의 문제 설정과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의 궤적

그레고리 스미스사이먼(Gregory Smithsimon, 2013)의 ‘공간적 정의(spatial definition)’ 개념을 빌리자면, 도시는 미디어 문화연구의 작업 내용과 연구 방식, 실천 목표를 조직하는 중대 조건에 해당한다. 문화연구가 그 존재 기반을 둔 근본적 물질성이다. 공간적 맥락에 내포된 문화연구는 도시라는 주제, 공간이라는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도시가 일상과 대중, 문화를 키워드로 한 문화연구의 일차적 관심사이자 핵심적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친숙한 도시생활의 다양한 지점들에 관한 공간분석가(topoanalyst)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996)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기의 도시/도시의 위기는 문화연구의 존재성을 둘러싼 “근원적이고 확실하며 직접적인 기원(the germ of the essential, sure, immediate)”이다. 빠져나갈 수 없는 문맥, 탈피 불가능한 “원천적 껍질(the original shell)”이다(4쪽).

사실, 초기 구성 단계의 한국 문화연구는 도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도시 공간을 관통하는 자본의 축적 양식, 도심에 펼쳐지는 문화의 구성 양상에 천착했다. 1992년 나온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는 새로운 소비/자본/공간/문화의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탐구한 대표적 산물이다. 본격적 신자유주의 시대의 다양한 문화 실천을 공간적으로 짚어내는 독해 시도로서, 관찰자의 시선은 이후 압구정과 구로, 청계천과 신사동, 용산과 신촌 사이를 오간다(김진송·엄혁, 1995). 자본의 도시가 계발하는 새로운 감각에 조용하는 문화주의 글쓰기의 감수성을 싹틔웠다. 한편 강내희(1995)는 잠실 롯데월드를 독점자본의 문화공간으로 읽어낸 비판적 에세이를 선보인다. 자본이 도시를 장악하고, 자본주의가 공간적으로 관철된다. 자본주의 소비주체가 상품 논리 지배의 도시 공간에서 탄생한다. 어린(룸펜)프롤레타리아트들 사이에서 ‘새로운 만보객’ 문화연구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베냐민 견해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 거리를 점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소수 자본이 장악했고, 서울의 주요 공간은 독점자본 논리에 따라 관리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길마저 자본에

게 빼앗겨 조용하게 산책할 곳조차 없다. 오늘 만보객은 거의 반드시 롯데월드와 같은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공간에 들어가야만 만보객이 될 수 있다(강내희, 1995, 133쪽).

〈문화과학〉과 같은 지면을 통해 임동근(1999), 홍성태(2004) 등의 비판적 작업이 이어진다. 자본의 지배력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저항과 변용, 자율의 실천성을 일정하게 강조하는 문화연구 성과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 양식을 모듈(module) 형태로 표기하고 산책을 도시 생존적 목적으로 재해석한 임동근의 작업은 매우 흥미롭다. 자본의 지배에 반하는 공간 점령의 테크닉이자 예술 실험의 전술인 스쿼트(squat)에 관한 김강(2008)의 서평, 빈민 주거 양식으로의 수렴을 통한 가난의 비가시화 문제를 짚은 남원석(2004)의 논문 등이 이어진다. 이들 문화연구자에게 도시는 지배와 항거의 모순이 빚어지는 문화정치의 지대다. 한편, 이들과 밀접히 교류한 이성욱(2004)은 근대 문학을 근대 도시에서 읽어내고, 도시라는 공간에서 문학의 탄생을 포착코자 했다. 도시 공간과 소설문학의 변증법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근대 도시 공간 연구의 최근 경향성을 선취한다.⁵⁾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국내 문화연구자들의 도시 공간에 관한 관심사는 자본주의 당대성로부터 크게 후진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적) 공간 탈취 현상에 관한 정치경제학 비판, 국가 통치 및 치안 상황에 관한 국면 분석과 접합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다.⁶⁾ 도시에 산재한 빈곤 계급의 삶에 관한 문화연구도 마찬가지다. 조은(2012)의 〈사당동 더하기 25〉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은 것도, 빈난한 도시 공간의 문화를 민속지학으로써 두텁게 기술한 노고의 진정성에 덧붙여, 이러한 연구가 태부족인 수적 희소성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⁷⁾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공통으로 처한 재난 상황은 비판적 사회학이

5) 근대 도시는 근대 문학 성립의 불가피한 요소라는 이성욱의 테제에 대해, 강내희는 이 책 서문에서 박태원의 계보를 잇는 고현학(考現學)의 전통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를 연장시켜 보자면, (탈)현대의 도시는 (탈)현대 대중문학의 현상과 변화를 조건 짓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또 다른 테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즉, 문화연구는 (포스트)자본주의 도시 공간의 (포스트주의)고현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6) 전규찬(2008)은 드물게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폭력적 신자유주의 '치안 스테이트' 구축의 시간으로 풀이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시각을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 견지하여 파시즘의 논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7) 같은 시기 최협(2012)은 〈판자촌 읽기〉를 내놓는다. 〈사당동 더하기 25〉가 부족하지만 사당동에서 옮겨간 상계동 임대 아파트 내부 빈민의 현재적 삶에도 주목한 반면, 이 책은 40년 전 청계천 빈민문화를 필드 노트 등에 기초해 복기한다. 과거의 삶을 현재적 시각에서, 비판적 이론에 기초해 풀어내거나, 과거지사를 현실의 문화와 연결시키는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 연구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구조화되고 밀폐된 도시 빈민 공간의 현실문화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비춰볼 때, 고시원이라는 청년의 주거공간을 참여 관찰한 정민우(2011)의 〈자기만의 방〉, 서울역 앞 노숙자들의 공간 실천 전략을 탐색한 김준호(2010)의 〈거리 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현실 공간의 문화주의적인 이해라는 측면에서 석사학위논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나 문화연구에서 일종의 공백 상태로 남는다. 데이비드 하비(Harvey, 2006)가 우려한 대로, 한국 문화연구에서의 ‘공간적 선회(spatial turn)’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의 ‘등 돌림(turning away)’이라는 치명적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생명의 위기, 인명의 위협 공간인 자본주의 도시를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희소해진다. 대신에 과거의 도시, 도시의 과거로 시선을 돌리는 낭만주의 경향이 득세한다. 식민지 근대 경성의 탄생과 그 공간을 배회한 모던보이와 신여성들에게 주목하는 회고조의 글쓰기가 역사 문화연구, 문화사라는 이름으로 유행한다. 김진송(1999)의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신명직(2003)의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조이담·박태원(2005)의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서지영(2013)의 〈경성의 모던걸〉 등이 이 계열을 대표한다. 이들은 공히 일제 식민지를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의 시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제국의 도시를 지배와 저항의 공간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사회·문화·정치적 실천의 상대적 자율성에 주목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와 자연스럽게 접친다. 국내에서도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은 베냐민의 역사철학, 공간 프로젝트, 산책자 개념을 이론적 기초로 삼은 조류다.

설혹 당대성에 천착하는 경우에도, 도시 공간은 비판적 관찰 대상이기보다는 해석적 이해 표적으로 남는다. 기억의 발굴 현장. 과거를 회고하고 기록을 남기며, 이야기를 펼칠 창작의 장소. 끊임없는 개발과 빠른 변화의 현장에서, 삶의 흔적을 더듬고 공간의 잔해를 되짚으며 이를 추억으로 남기는 글쓰기 노력이 이어진다. 서울의 다기한 문화적 조건과 내용, 형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발견코자 한 강수미(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근현대 서울 명동을 소비 여성 주체 회집의 공간이자 출현의 장소로 읽어낸 김미선(2012)의 작업, 이상의 삶과 소설을 공간적 문맥과 연결시켜 과감하게 해석코자 한 김민수(2012)의 글, 유년기 자신이 살던 서울 노량진의 잃어버린 기억을 좇는 김진송(2008)의 소설 에세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텍스트는 도시를 과거가 공간으로 다가가며, 그곳에서 발견하는 건 삶의 향수이자 자취다. 자본국가에 의한 생명 위협의 현재적 모순현실은 아니다.

도시를 텍스트로 간주해 새롭게 읽는 노력,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롭게 들여다보고 다르게 그려 내는 시도는 최근 더욱 도드라진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별자리 흐름으로 그려내고 서울 지하철과 아케이드의 지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거나(정진열·김형재, 2011), 서울 강변북로의 “흐름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흐르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운명을 ‘감내’하고”(209쪽) 있는 콘크리트 교각을 사진으로 형상화하고 글로써 부연한 작업(이영준, 2011)들이 나온다. 베냐민과 구보라는 도시 관상학자의 모범을 좇아 포스트모던 서울 거리를 산책하며 채굴한 인상을 단편적 텍스트로 옮긴 류신(2013)

의 프로젝트도 글쓰기의 완성도나 감각의 세련미 측면에서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공적으로는 냉소적이지만 사적으로는 정열적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파트 공간문화에 관한 박해천(2013)과 박철수(2013) 등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문화연구자라 자칭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공은 (시각)디자인에서 건축학, 미술비평, 사진/이미지 비평, 문학비평, 여성학 등으로 다양하다. 인문학과 예술 계열에 쏠려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베나민과 크라카우어, 들뢰즈, 아감벤 등의 이론과 사유에 기대는 이들의 해석적 글쓰기가 사회학적 각도, 비판적 의식을 완전히 결여한 것은 아니다. “자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신화가 이렇게 형성되”(196쪽)어 버린 도시 공간을 사뭇 비판조로 언급한다(정진열·김형재, 2011). 강내희가 방문했던 롯데월드의 유리 돔에서 “현실 세계로부터 동화 나라와 신화 왕국을 보호하는 유리벽이자 현실에서 억압된 환상과 실현할 수 없는 소망을 투시하는 거대한 스크린”(207쪽), ‘욕망의 천체’를 예리하게 식별해 내기도 한다(류신, 2013).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은 대부분 파편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에 그치며, 심층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거의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 공간의 정치경제적 배치와 이를 주조하는 권력의 편성, 자본의 공간 축적과 국가에 의한 공간 사유화, 공적 공간 탈취와 프롤레타리아트 생활 공간 해체 등에 관한 진지한 접근을 기대하긴 사실상 힘들다. 저항과 적대, 변용의 다양한 공간 실천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몫은 사라질 장소와 이면의 공간을 소유하고 이미지로 표출하는 노력에 그친다. “텍스트의 편린들을 집요하게 선별하고 섬세하게 분류해서 새로운 맥락과 구도 속에서 독창적으로 재배치하는”(185쪽) ‘비평가로서의 수집가’ 역이다(류신, 2013). 특정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되지 않은 걸 서사로 활성화하는 해석적 개입이다. ‘도시의 인식은 꿈결같이 내뿜는 이미지들의 해독에 달려 있다’는 크라카우어의 말을 옮길 때, 류신은 도시의 시적 해독자인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드러낸다. 도시에서 출현하고 도심에서 그 부재가 입증되는 자본국가는 오직 수식적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만다.⁸⁾

이렇듯 시류를 주도하는 예술·인문학 글쓰기와 대조적으로, 자본국가의 도시 공간

8) 새로운 글쓰기로 주목을 끈 박해천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아파트 단지를 참신한 스타일의 미시사로 적는다. 독점자본주의의 핵심 개발품이자 건축·주거 양식인 아파트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욕망하는 (중산층) 주체의 뒤틀린 내면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박해천은 문화주의 입장을 적극 견지한다. 아파트 생활과 아파트 욕망의 습속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장치 개념을 활용할 때, 아파트가 비록 자본주의가 출산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소비욕망이 집중된 표면의 현상/문화적 현실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크라카우어의 대중장식 개념을 전용할 때, 이런 입장이 확인해진다. 예술·인문학의 적극적 문화주의 인수. 이것이 바로 박해천으로 대변되는 도시 공간 연구의 최근 대세라 할 수 있겠다.

지배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문화연구는 흔치 않다. 정치경제학적 심층 연구와 인문학적 현상 분석의 사이에서 도시 공간 생활문화의 진상 파악에 주력하는 문화정치학이 사실 부재하다. 특히 도시 공간이라는 문맥과 미디어 문화연구의 격리는 가히 놀랄 만하다. 미디어 문화연구는 도시 공간의 문제 설정으로부터 사실상 소외되다시피 해 있다. 도시 공간의 현실, 도시 공간문화라는 현상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라는 생활 매체에 관해 사유하고 분석하지 않으며, 도심의 불안(진)과 파국의 제 조건들을 주시하지 못한다. 이런 맹목의 글쓰기가 결국 탈문맥화의 내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박해천(2013)은 백전백패할 '좌파 담론'의 한계를 조롱하기에 앞서, 바로 이 팝진한 좌파 문화주의 글쓰기를 우선 시비했어야 한다. 좌파(문화연구)는 도시 공간에 관해 잘못 짚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말이 없어서 큰 문제인 것이다.

이렇듯 (인)문학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탈피해 도시라는 콘텍스트로 다가설 때, 급진적 문맥주의를 주창하던 (미디어)문화연구는 막상 도심의 현실 조건에서 떨어져 텍스트/담론/이미지에 갇힌다. 전자가 텍스트/콘텍스트를 교차하는 문화연구의 태도를 능동적으로 지향할 때, 후자는 탈역사주의 인문·예술의 소극적 퇴행성을 닮아 간다. '계급으로부터의 퇴거'와 맞물린 자본주의 도시 현실문화로부터의 탈락. 텍스트 담론 분석 중심의 요새화. 물론 이런 탈문맥화의 한계를 반성하고 텍스트 외부 도시 공간의 실재계에 천착코자 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문헌 정리와 참여 관찰의 방법론, 베냐민의 산책자 개념, 서벌턴(subaltern)의 역사학을 기반으로 특정 공간을 살피거나 도시 공간 연구의 의의를 설파하는 간헐적인 작업에 그친다.⁹⁾ 도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위기 전경, 복잡한 생명 위협의 양상들을 추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고 역량이다.

요컨대, (미디어)문화연구는 도시 대중의 대중문화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도시 대중의 문화가 처한 위험 상태를 의도와 상관없이 방기하며, 문화연구 탈문맥화/탈정치화의 위기를 자초한다. 도시를 미디어로 간주하고 대중문화/일상문화의 핵심 처소로 파악하는 데 반대할 미디어 문화연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서 우리는 왜 도시 공간의 주제, 도시 공간 문화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무관심은 미디어를

9) 이 드문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기형(2007). 홍대 앞 “인디음악문화”에 대한 문화연구적인 분석. 〈언론과 사회〉, 15권 1호, 41-85; 이기형·임도경(2007). 문화연구를 위한 제안: 현장연구와 민속지학적 상상력을 재점화하기. 〈언론과 사회〉, 15권 4호, 156-201; 이기형(2008). 문화연구와 공간: 도시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학과 시학을 지리학적 상상력으로 그리고 자전적으로 표출하기. 〈언론과 사회〉, 16권 3호, 2-49; 전규찬(2008). 촛불집회, 민주적·자율적 대중교통의 비행. 〈문화과학〉, 55 가을호, 110-129; 전규찬(2010). 지하철이라는 현대적 대중교통의 탄생. 〈언론과 사회〉, 18권 1호, 153-188; 전규찬(2014). 남산, 숨겨진 살인과 범죄의 공간. 〈언론과 사회〉, 22권 1호, 5-53.

신문과 방송 등 주류 매체에 국한시키는 관념의 협의성과 시선의 폐쇄성 탓인가? 아니면, 대중의 삶과 유리된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의 계급적 위치, 이데올로기적 성향 혹은 정치적 무의식 탓인가?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는 도시 공간을 보고 말하지 못하는 문맹의 장애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빠른 시간 내 논문을 양산하고, 그래서 대학 세계에서 생존해야 하는 당대 학술 생산의 지배적 구조가 낳은 풍토병인가? 혹, 미디어 문화연구는 원래 그러한 것이었나?

3. 피스크, 도시 공간의 위기 스테이트를 절망적으로 응시하다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의 형성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루된 미국 미디어 문화연구가 탈 맥락, 탈도심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연구의 탈도시 공간화, 탈문맥화는 미국 문화연구를 선도한 존 피스크에게서 이미 전조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달리 말해,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 내 도시 공간의 문제의식 부재는 텔레비전 문화의 주제 의식에 밀폐된 소위 피스크류 미국 문화연구의 구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 피스크가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게 오해와 편견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한국미디어 문화연구(자)의 현실 공간으로부터의 이상한 소격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장에서 본인은 피스크가 텔레비전·텍스트·문화의 이해에만 몰두한 게 아님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 미국 문화연구자의 학자적 시간은 오히려 도시 공간 콘텍스트의 위험상황을 비판하면서 마감되었음을 적시코자 한다.¹⁰⁾ ‘피스크 때문’이라는 알리

10) 왜 하필 피스크인가 재차 반문할 수 있다. 그 해답은 (미국)문화연구에서 피스크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대표성에 덧붙여, 그에게 덧씌워진 비난성 평가에 있다. 그로스버그(Grossberg)가 견지하고 있(다)는 역사적·급진적 문맥주의와 대비하여 미국 문화연구의 탈문맥화 흐름을 지적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언급되는 게 피스크이기 때문이다. 피스크는 원래는 신좌파, (네오)마르크스주의적인 영국 문화연구를 호주를 경유해 미국으로 이식하면서 타락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문화연구를 연성화·개량화하고 제도화시킨 장본인으로 지탄받았다. 훨씬 더 광폭인 문화연구를 텔레비전 미디어 연구로 축소시켰으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적대하는 문화정치를 수용자/능동성과 즐거움/저항의 개념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로 대체시켜 버린 주범. 돌이켜 보건데, 피스크를 필두/중심으로 한 1980-1990년대 미국 문화연구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체제 내부로 포섭된 퇴보적 상대주의의 유행에 다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적은 비판 커뮤니케이션 전통이 뚜렷했던 국내에서 특히 뚜렷했다. 1990년대 초반 쏟아진 비난은, 비단 피스크와 그가 이끈 미국 문화연구에만 그치지 않았다, 소위 ‘피스크류’의 미국 문화연구를 이식한 것으로 지목된 원용진과 전규찬 등에게도 탈정치, 비실천, 반진보의 혐의가 씌워진다. 요컨대 ‘피스크 식’의 문화연구는 한국에서 애당초 극복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비판의 상대로 소개되었다. 이에 조응하여, 이후 한국의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은 소위 ‘피스크 식’의 극복을 실천적 약점에 관한 반성, 탈문맥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성찰의 시발점으로 가져가는 경향을 보인다.

바이를 깨기 위해서다.

많은 논란을 남긴 채, 피스크는 2000년 홀연히 교수직을 그만뒀다. 미국 동부 시골에서 골동품 수집가가 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하나, 이후 그의 행적은 거의 수수께끼로 남는다. 많은 이들을 당혹케 한 자발적 실종이었다. 공적인 흔적을 지워 버리고 사회로부터 삶을 절연시키는 일종의 능동적 퇴거다. 대체 그는 왜 문화연구는 물론이고 현실문화, 대중사회와 완전히 단절하고 철저히 퇴거해 버렸는가? 비밀스러운 행적을 남긴 이 원로 문화연구자가 마지막으로 본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나? 피스크는 ‘능동적 수용자’들이 펼치는 ‘기호학적 실천’ 외에 혹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는가? 어디에서? 1994년 피스크는 *Media Matters: Everyday Culture and Political Change*를 쓴다. 이전 것들에 비해 미디어 문화연구자들로부터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한 책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저작에 수수께끼 같은 사회적 퇴거의 이유와 자발적 실종의 의미를 파악할 단서가 내포해 있다.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의식이 급변한다. 미디어 기술을 통한 담론 투쟁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감시 능력의 확장을 통해 특정한 사회 지식을 생성·유포할 권력의 실제성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국가가 시각화 권력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의미를 둔 투쟁은 결국 보는 행위 자체를 둘러싼 싸움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텔레비전은 이제 감시 장치로 간주된다. 감시와 독재의 전체주의 스테이트(state)¹¹⁾를 도래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시청각 장치의 증산은 민주적 다원성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 시청각 감시 장치의 발전과 이에 조용하는 경찰 무력의 극대화과 테러의 효과성을 경고하면서, 그는 군이 치안을 빌미로 도심에 투입되는 예외 상황마저 배제하지 않는다. 피스크에게 미국 대도시는 통제 테크놀로지와 일상적 감시 활동, 치안의 스테이트가 융합된 악몽의 미디어공간에 다름 아니다. 9·11 한참 전의 통찰이다.

변화에 대한 희망이 투사된 텔레비전 문화연구에서 빠져 나와, 피스크는 인종 갈등과 계급 모순, 국가 감시, 미디어 통제로 점철된 일상문화의 현실로 걸어 들어선다. 그가 목도한 대도시는 계급과 인종적으로 나뉜, 체계적 소외와 절망의 공간이다. 다수 프롤레타리아트와 소수 부르주아의 고립되고 차단된 거주지들로 구성된 구조적 분할과 배제의 장소다(Davis, 1990). 그 사이의 광장과 거리는 치안 권력에 의해 폐쇄되고 감시 카메라에 의해 장악된 채, 일방적 교통의 빈 공간으로 퇴락한다. 감시의 테크닉과 테크놀로지가 분리된 이웃들의 (사)생활세계를 황폐화시킨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생산과 소비라는 경제

11) 여기서 스테이트는 국가와 상태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지닌 단어로 쓰인다.

적 영역, 거리와 공원 그리고 이웃이라는 공적인 영역, 가정 내 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의 빠른 확장이 우리가 처한 사회질서의 성격과 그 안에 거주한다는 것의 느낌까지도 변모시키고 있다”(246쪽)고 애도한다(Fiske, 1994).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공개적으로 조우할 공통 공간과 공적 공간, 사회적 공간들이 국가권력이 조장하는 공포감에 의해 폐쇄된다. 도시는 상호 경계의 악몽 공간으로 타락하며, 특히 낯선 타자를 혐오·분리·차별하는 목시록적 악몽의 장소로 변질된다. 텔레비전이 구현하는 듯한 기호학적, 민주적 개방성은 현실세계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피스크가 목도한 것은 절망적인 현실, 파국적인 콘텍스트로서의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감시체제다. 도시 공간을 관통하는 공공성 실종, 공적 영역 살해가 자본국가의 결정적이고 현저한 문제로 두드러진다. 인종화된 저계급(underclass)의 위험 요소들을 계토로 봉쇄·격리하는 인구 통제의 권력 기술, 치안 사회의 테크닉은 시민 사생활 일반, 즉 일상문화의 위험에서 나아가 정치사회 전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최종 저작물에서 피스크는 이 위기의 현실 문맥으로 빠져나와, 문화연구를 자본주의 도시 공간의 주제와 결속시킨다.

레이건과 부시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레짐(regime)의 통치 메커니즘을 정확히 간파 하면서, 대처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치를 분석적으로 폭로한 스투어트 홀 등(Stewart Hall et al., 1978)의 초기 테마로 돌아간다. 홀과 마찬가지로, 피스크도 도시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자본국가가 펼치는 미디어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한 헤게모니 통치 국면을 폭로하고 비판코자 한다. 추상적이고 당위적이라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피스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대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삶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다원성을 사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류 미디어를 적대적으로 읽는 것에서 한참 나아가야 한다. 대안 매체의 소수자적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익이 조성하는 공포감에 휘말린 채, 대중들은 자신만의 고립된 처소에 칩거할 공산이 커진다. 그러면 세계는 더욱 폐쇄되고, 사회는 훨씬 더 황폐해질 것이다.

디스토피아의 불길한 전망. 파국의 예상.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p.253) 피스크는 이 윤리적 질문으로 최종 저술의 마지막 챕터를 접는다. 그의 답은 물론 결단코 ‘노!’ 일 것이다. 누가 감시통제 사회의 출현, 치안 스테이트의 도래, 국가 통치체제의 완성을 원하는가? 피스크는 이렇듯 도시라는 결정적 미디어가 펼쳐는 신자유주의 파국의 콘텍스트, 자본국가 재난의 현실을 읽고 그에 관한 반론을 제출하면서 학자의 시간을 마감한다. 그의 말년은 미디어/텍스트/의미/문화의 영토 내 즐거움/기호학/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TV문화로부터 급진적으로 탈피해, 도심으로 걸음을 옮겼다. 민주주의를 기호

학적 의미 실천에서 한참 나아간 국가 통제/통치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정치적 실천 과제로 재귀시키면서다. 그렇게 피스크는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빠져 나갔으며, 이런 점에서 문화연구 탈문맥화와 탈정치화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명백히 불충분하고 아쉽게도 지속되지 않은 것이지만, 피스크는 TV문화연구자라는 통념으로 기억되는 뚜렷한 족적 외에 도시 현실 문화연구자로서의 의외의 흔적을 희미하게나마 남겼다. 피스크의 좌파적 자취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반성적 각성을 그가 도시라는 미디어에의 참여 관찰로부터 얻어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관심사를 협의한 미디어 문화에 국한시킨 여타 연구자들과 달리, 미국 미디어 문화연구를 이끈 피스크는 도시를 자본주의의 미디어로 꼽으면서 그것이 표현하고 거기서 표출되는 현실세계의 위기를 묵시록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다. 기껏해야 문화적 자유주의로서 자본주의 대중문화를 긍정하고 합리화시키는데 부역했다는 오명을 덮어쓴 피스크는, 최소한 말년에 이르러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위협 세계로의 산책을 피스크가 결정한 좌측 변침이라 하겠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은 측면이다.

미국 문화연구는 근본적으로 텍스트에 폐쇄된 탈문맥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원흉인 피스크의 사유에 기댄 한국의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은 애당초 자본주의 현실문제에 대해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영국 문화연구의 신좌파/네오마르크스주의 전통과 달리, 한국 문화연구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처럼) 현실개입적인 태도를 멀리한 것을 피스크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피스크는 한국미디어 문화연구의 탈맥락화의 원흉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텍스트의 울타리를 넘어 도심이라는 문맥에서 자본국가 비판의 문제의식을 되찾았다. 이 측면이 제대로 부각되었더라면, 말년의 피스크가 택한 도시산책을 더욱 집요하게 쫓았더라면,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는 지금과 같이 도시 문제와 완전히 소원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신자유주의 생명 위기 현실에 개입하는, 말 그대로의 ‘래디컬 문맥주의’를 일정하게 견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피스크는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의 이론은 대체적으로 미디어 중심적이고 텍스트 환원적이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정도되어 있었으며, 대중의 미디어 수용과 문화 소비의 실천이라는 소재에 치우쳐 있었다. 그렇지만 최소한 말년에 이르러 피스크는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인다. 문제의식의 심화와 확장. 텍스트이자 콘텍스트이며 표현 매체인 동시에 실제 세계인 도시를 침예한 모순 지점으로 정확하게 포착해 냈다. 국가 통제·통제의 핵심 공간으로 주목한 것이다. 텔레비전은 이제 단순한 미디어/문화만이 아닌, 국가/권력의 원격 광학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로 인해 초래될 사회 위기와 생활 위험, 민주주의 위협에 문화연구는 보다 문맥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한국의 미디어 문화

연구자들과 그 비판자들은 이러한 지점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스크가 전 송코자 한 전체주의 도래의 경고 메시지를 접수하는 데 실패한다.

그가 지닌 보다 심각한 문제, 더욱 중요한 한계도 제대로 짚지 못한다. 말했듯이, 피스크는 전체주의의 그늘이 진 도시를 악몽과 같은 현실감으로 주시하면서, 그곳에서 펼쳐지는 불안한 생활 양상과 공포의 통치 양식에 치를 떤다. 민주주의의 파국을 두려워한다. 사회가 위협하다! 삶이 위태롭다! 피스크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명철히 간파했다. 보다 정확히 말해, 현실에 절망했다. 사실상 희망을 포기한다. 그러하기에 그는 변화의 가능성이나 모순에 개입할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주저한다. 침묵을 지킨다. 도시 공간을 지배하고 일상문화를 장악한 국가권력의 감시 기술을 걷어내고, 공포 조장의 미디어에 적대하고 일방 모니터의 CCTV를 철거하며, 그럼으로써 다원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가치가 보호되는 대항적 문화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버리는 것이다. 그와 밀접하게 연동된 급진적 정치 변화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비관적인 입장을 띤다.

결국, 피스크는 현실을 고발하고 문제를 폭로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데 멈추고 만다. 현실 변화의 실천을 스스로 자임하진 않는다. 문제 현실을 해소하는 정치, 위험 현실의 조건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대중들과 더불어 희망을 찾고 가능성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나가지 못한다. 대항의 전략과 적대의 전술, 변화의 테크닉을 모색하는 좌파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지 않는다. 절망의 현실로부터 서둘러 등 돌리며, 구체적인 답을 갖고 문제를 푸는 정치적 실천의 책무를 놓아 버린다. 영민한 기호학자인 피스크는 미국 도심의 표정에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한참은 지속될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전체주의를 간파했다. 그리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삶을 지배하는 국가 감시 권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듯한 공적 영역으로부터 완전한 퇴거를 택한다. 자취를 감추는 식이다.¹²⁾ 바로 이 실천적 소극주의가 능동적 수용자론보다 더 아쉬운 피스크의 한계다.

12) 사실 피스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 은퇴해 골동품 수집가로 변신한 그는 2010년 6월 잠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Fiske Matters'라는 제목이 붙은 문화연구에 대한 피스크의 지속적 유산을 기리는 회의(A Conference on John Fiske's Continuing Legacy for Cultural Studies)가 위스콘신대학에서 열렸다. 젠킨스(H. Jenkins)가 '기술투쟁의 재방문: 참여, 저항,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문화정치(Technostruggles Revisited: Participation, Resistance, Digital Media & Cultural Politics)'라는 제목의 키노트 스피치를 했다. 흥미로운 것은 '초기 근대 유럽에서의 개인의 성장(The Rise of Individual in Early Modern Europe)'이라는 제목이 붙은 피스크의 키노트 연설이었다. 그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압살하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의미, 개인의 문제에 천착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사회적인 활동, 정치적인 개입, 문화적인 실천이 아닌 개인의 결단, 개인주의적인 처신에서 찾는다. 키노트 부제는 상징적으로 '문화연구와 골동품의 얽힘(Cultural Studies Tangles Antiques)'이었다. 현실의 문화연구에서 벗어나 과거의 수집품 수집으로 나선 자신의 선택을 그렇게 해명하고 있었다.

4. 산책의 가능성과 위기 시대 도시 변용의 문화주의 전술

요컨대, 말년의 피스크는 텔레비전·문화·텍스트 외부로 나가 도시 공간에 펼쳐지는 신자유주의 자본국가 지배와 통제의 현실에 눈 떴지만, 그 위기의 정세에 뛰어들어 위험한 국면을 뛰어넘으려 하진 않았다. 감시 통제 체제하 위기의 삶을 개인적 도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탈주로 지켜내고자 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이다. 스스로를 감시·응시의 자본 권력으로부터 빼내는 적극적 소극주의, 래디컬한 개인주의다. 피스크의 한계는 지금까지 다수가 말해 온 미디어 활용과 대중의 해독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 기껏해야 다원적 민주주의에 머물 문화주의에 있지 않다. 더 큰 아쉬움은, 위기의 상황과 감시·통제의 상태에 구속된 대중을 버린 채 도시 공간 현실의 지배적 문맥, 삶의 주도적 조건으로부터 홀연히 빠져 나가 은닉해 버린 지적·실천적 비판주의에 있다. 능동적이라 했던 대중들과 결별해 골동품들로 가득 찬 자택 내부로 단신 기피해 버린 소극적 일신주의다.

대중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인 양 설파하던 문화연구자는 도시 대중문화가 위급에 처한 바로 그 비상 상황에서 대중과 결별해 은거해 버린다. 사회 변화를 회의하는 지식인 계급이 취하는 의지적 비판주의? 1960년대 국제상황주의를 주도한 기 드보르(Guy Debord)의 행적을 떠올리게 한다. 기 드보르(Guy Debord, 2004) 또한 “평생에 걸쳐 문제적 시간과 극단적 사회 분리, 엄청난 파괴만을 지켜보았다”(3쪽). 그는 옥죄어오고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자본주의 분리 체제, 전지적 감시 구조, 독백선전의 스펙터클 시스템에 절망한다. 결국, 외양적 자본(주의)의 지배에 대한 그의 선택은 대중과 함께 하는 행동주의나 건축가들과 공모하는 상황주의, 다큐멘터리리스트로 변신해 내놓는 영상 작업이 더 이상 아니다. 견고하게 구축된 사적 요새로의 퇴거다.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된 거처에서 기 드보르는 자신이 아끼던 골동품 권총들 중 하나로 결국 목숨을 끊어 버렸다. 자결(自決)!

피스크의 행적은 물론 이 비극적 행보와 한참 다르다. 노학자인 그는 말년에 이르러 의외지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취를 택했다. 국가 통치의 공간, 공안(公安)의 시간과 절연하기 위한 극적인 자신 배려의 조치라 볼 수 있다. 감시 통제로 점철된 권력의 장과는 한참 차이 나는 작은 이웃, 지역 공동체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퇴거이자 미래가 불투명한 민주주의를 대신한 친밀한 주민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우리는 TV 문화연구 분야에서 빼어난 족적을 남겼고 도시 문화연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취를 새긴 그의 급작스러운 퇴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아쉬움을 피력할 수 있다. 각자도생의 개인주의적 처신을 비판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난만 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더 많이 비판받고 재고되어야 할 것은 피스크의 장점과 취약점, 고민 지점을 깊이 이해·사유·극복하면서 그의 산책(술)을 지

속·승계·극복·발전시켜 내지 못한 이후 (한국)미디어 문화연구자, 즉 우리의 관습적 행보다.

미디어 문화연구는 피스크로부터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피스크로부터 ‘능동적 수용자론’의 유산을 불만스럽게 전수받으면서, 그가 말년에 발신한 절망적 도시주의의 메시지에는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 그를 이어 위기의 도시 공간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그를 뛰어넘어 공적 공간 재구성의 사업을 책임감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문화 재생을 위한 좌파(공간) 정치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도 못했다. 신자유주의 자본국가 내 도시 공간과 권력 통치, 미디어 문화정치의 중대한 연결고리를 변화하는 콘텍스트와 변동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하게 풀어내는 일 또한 드물다. 피스크가 간파한 모순과 적대하는 이론적 실천, 실천적 이론의 결여. 모순 현장에서 대중들과 더불어 가능성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는 행동주의의 부재는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다. 현실로부터 분리된 채 피스크가 초기에 설파한 과장된 수용자론을 시비할 뿐, 좌 변침한 피스크를 한 치도 넘어서지 못했다.

2장에서 살펴본,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자들과 도시 공간 비판의 분리,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삶의 비상사태하 문화연구의 불구적 탈현실화는 피스크의 탓이 아니다. 피스크의 전통을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다. 피스크의 산책(술)을 래디컬하게 진화시키지 못한 우리 후학(後學)들에게 더 큰 실패의 책임이 있다. 문화연구의 시급한 역사적 재맥락화를 위해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이 도사린 도시 공간 현실에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진보적 문화 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복기할 지점이다. 자본국가 도시 공간 내 위기의 일상생활, 그 주체인 대중들의 위험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좌파 문화연구의 재편성을 위해, 우리는 피스크가 남긴 좌측 통로의 흔적을 쫓아 자본주의 도시로 다가가 봐야 한다. 그가 걸음을 멈춘 지점에서 나아가 도시 공간의 제 위기들을 추적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변증법적 미디어 문화연구의 재구성을 모색해야 한다. 피스크를 길게 재론하는 이유다.

마셜 버먼(Marshall Berman)과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사유를 돌아보고 이들의 행적과 다시 접속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 후보자들 중 특별히 이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작업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그들은 피스크와 우리 사이의 끊어진 선을 새로 잇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실, 두 사람은 문화연구의 역사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 흐름, 즉 흡을 중심으로 한 영국 문화연구 전통과 알튀세르나 바르트로 정리되는 프랑스 구조주의 전통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 그런 두 사람을 피스크는 자신의 문화 이론을 직조하고 사유 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대한 참고인으로 삼았다.¹³⁾ 마지막으로, 이들은 실제로 피스크와 마찬가지로 도시 공간의 문제에 천착한 현실의 문화연구자들이다. 피스크에 앞서 혹은 피스크보다 한참 나아가 도시 공간 미디어 문화연구

구의 계보를 이어간, 그럼에도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에서 그 공적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결정적 이론가이자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도시 공간의 문제에 관해 어떠한 점을 피스크와 생각을 공유했으며 어떠한 지점에서 그와 차이를 보였다? 이들로부터 우리는 문화연구의 도시 공간적 배치와 문화연구의 현장 개입적 재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선, 버먼과 세르토는 피스크가 앞 장에서 제기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계인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로 ‘아니오!’라 동의한다. 다만, 피스크가 질문의 공개 이후 학문 실천 자체를 포기하고 행적을 감춘 데 반해, 두 사람은 모순 현장에 남아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며, 두 사람은 각자 성실한 사유와 실천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세르토가 피스크에 앞서 저항의 전략적 의미에 천착했다면, 버먼은 이후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자본국가의 지배 통제하 저항의 가능성을 인간주의적이고 변증법적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찾아가고 있다.

우선 세르토는 피스크가 수행한 자본주의 도시 문제 정찰 활동을 앞서 실행하고 있었다. 그가 일찌감치 관심을 둔 것은, 피스크가 말년에 일시적으로 떠맡을 도심의 위기 현실 독해, 모순의 공간 현실 포기의 세부기술이다. 체제 변화와 운동, 실천의 구체적 전술이다. 지역 네트워크 차원에서만 가능한, 그가 ‘관계적 전술(relational tactics)’이라고 명명한 삶, 즉 문화 보호를 위한 투쟁과 자율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아이디어다. 지배적 자본주의 정치경제 내에서 그 변형을 시도하고, 전유를 창의하는 이용자 대중들과 더불어 집합적 행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를 전술로써 실행에 옮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을 세르토는 견지했다. 일상생활 위기의 동정하에서도 다중의 전술은 여전히 가능하다. 문화연구(자)는 현실의 도심에서 삶의 주체인 대중들과 더불어 그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예술(가)이 되어야 한다.

전유의 실천적 사유가로서 세르토는 전략과 구분되는 전술 개념을 강조했다.¹⁴⁾ 피스

13) 개인적으로 나는 피스크 교수가 수업 중에 이 두 사람을 바흐친과 함께 중요하게 다룬 것을 잘 기억한다. 그 당시에는 왜 하필 두 사람인가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 최근 (피스크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를 복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세 사람을 함께 논하는 두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14) 우선, 전략(strategies)은 자원의 배치와 관계의 편성, 주체의 활동을 획정할 수 있는, 소수가 보유한 계산된 관계이자 합리화된 구조이며 이를 획정할 위력을 가리킨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정확히 후기 자본주의가 이윤의 축적과 체제의 재생산을 위해 계산적·합리적으로 채택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이 바로 이 자본의 전략과 이를 후원하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변모되고 있다. 사회적 공간이 통제되고, 공적인 영역이 사유화되며, 사이 공간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재갈이 물리고 있다. 스펙터클의 지배, 감시 카메라의 증대, 사생활의 침해는 자본국가가 추구하는 전략의 목표이자 내용이며 효과다. 이 지배 권력의 통치 전략에 개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

크가 정확히 인식을 공유하는 대목이다.¹⁵⁾ 도시는 복수의 서사를 제약하고 대중의 체험을 통제하며 “여러 많은 실질적 주제, 집단, 연합 혹은 개인들”(94쪽)의 사회 역사적 특이성을 배제한 채 보편화된 익명의 주체성을 창출한다(de Certeau, 1988).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설파한 판옵티콘의 통치행정 메커니즘이 현대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생활을 훈육·통제하는 권력의 작동 공간인 대도시. 그렇지만 지배 전략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속 ‘전술적 급습(tactical raids)’에 노출되며, 피스크가 보기에 “도시 거주자들은 훈육 메커니즘을 자기 자신의 자유로 변환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Fiske, 1989b, p.205). 도시는 양가적 혼합체다. 자본과 법질서의 힘에 의해 (재)생산되는 콘텍스트이지만, 통제와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질서의 텍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지배)전략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대항)전술에 주목하면서, 세르토도 그것을 무엇보다 대중문화의 공간인 대도시에서 우선 실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 거주자들이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making do)’ 한다고 믿은 그는 실제로 대중들이 강제된 규칙 속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술 테크닉을 구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본국가의 공간 지배력을 조작·회피·이용함으로써 삶과 놀이, 즐거움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구성하는 ‘약자의 기예(an art of the weak)’ 혹은 ‘협잡(trickery)’이다. 자본주의 대도시는 사회경제적 통치구조와 자본국가의 지배 전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권력에 대항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활성화되는 이상한 희망 공간이다. 권력은 도시에서 저항을 완전히 삭제시키지 못하며, 도시는 통치력의

다. 대의체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국가 법제도 정비 과정에 대중 참여의 기회는 거의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전술(tactics)은 지배 권력의 시각에서 보자면 소수자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획정하는 경계 바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소유권이나 특수한 장소성을 갖지 않는다. 특정한 시공간적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나 발명·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전유해 내며, 그리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특이성(the singularity)의 활동 계획이다(de Certeau, 1988). 푸코 식의 표현을 따르자면, 전술은 누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행사되는 것이다. 전략이 시스템에 속하는 것이고 자본국가 등 권력을 가진 집단의 통치적 기술 자원에 해당한다면, 전술은 시스템 내 전략으로 배치된 권력에 따라 삶·생계·문화를 영위하도록 강제된 개인이나 집단이 채택할 수 있는 예술·무기가 된다. 특정한 상황이 제공하는 기회를 낚아챌으로써 체제에 저항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약자·소수자 하위 주체의 문화정치적 테크놀로지다.

15) 피스크는 정확히 바로 이 대목에 주목했다. 소수자적 전술로서의 ‘읽기 활동(the activity of reading)’을 빌려와 (TV)대중문화를 통한 대중들의 기호학적 해독 실천에 주목하고, 즐거움을 통한/위한 소멸의 주제에 주의했다. 10대들의 비디오 게임 놀이에 동정의 시선을 보낸다. 그는 대중과 대중문화, 무엇보다 대중들의 문화정치가 지닌 가능성을 냉소하는 좌파 이론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취한다. 거시경제를 강조하면서 미시정치를 비하하는 태도, 한계와 더불어 잠재성도 지니고 있는 대중문화 소비의 실천을 부정하는 시선, 대중을 정치 행위자가 아닌 구조의 (신민)주체로 간주하는 엘리트주의와 거리를 둔다. 대중과 대중문화, 이를 통한 사회 변화에 대해 피스크는 “공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힌다(Fiske, 1989a, p.193).

규제적 작동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억압된 것들의 귀환 장소가 된다.

공간적 실천들을 통한 약자(적 삶)의 귀환 포인트, 소수자 정치의 출몰 지점이 된다. 도시는 규율하고 훈육하는 자본국가의 의지와 통치 권력의 억압에 개별적인 기예와 떼거리(swarming) 전술로 맞서는 약자의 정치 공간이다. 그 도심 다중들의 공간 실천을 보고 읽어 내는 일, 지배를 간파하고 적대를 파악하며 그 배치와 편성의 그림을 그려 내는 일, 변혁과 변환의 미세한 기운과 가능성 그리고 그 구체적 전개 방향을 짚어 내고 제시하는 일. 바로 이게 도시 시스템 내부를 걷는 행위로서 산책이 갖는 의미이자 발걸음이 내는 효과이며 문화연구자가 할 일이다. 이와 같이 세르토는 산책(散策)이라는 말 그대로 흠어져 은밀히 정세를 파악하고 차분히 정황을 살펴봄에 면밀히 빈틈을 찾아내는 테크닉을 통해 도시에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도심 내 발성의 공간을 읽어 내고, 이를 텍스트와 이론의 공간 안에서 다시 발음하는 작업이다.

요컨대 세르토는 걸으며 들은 소리를 텍스트 형태로 번역하는 게 문화연구자의 글쓰기 전략이라고 보면서, 이를 도시 공간에서 직접 실행코자 했다. 의미화 실천이 곧 '도시 공간을 창안하는 실천(practices that invent spaces)'이다(de Certeau, 1984). 이야기하기를 통해 우리는 도시 다원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바, 문화연구가 대도시를 작업지점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르토가 도시를 떠날 수 없는 까닭이다. 현실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진앙 지점, 그 한복판에서 위협과 기회,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내포한 대중들의 삶을 변증법적으로 읽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연구자는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빈번히 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 걸어가 보는 산책자와 감상자의 이중역을 동시에 감당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사태를 책임질 수 없다. 위기의 현실과 직면하지 못한다.

5. 도시라는 이상한 희망의 공간에서 지속하는 변증법적 문화연구

푸코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공간, 유토피아를 논구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장소, 지도 위에 실재하는 장소에 관심이 많았다. 현실의 좌표로 위치하면서 여전히 그 현실과는 차이 나는 위상을 가지며 그럼으로써 일정한 이의 제기와 정체성 반성, 존재감의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위치들. 복수(複數)로서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다. '다른 시간(heterochronia)'으로 구성되는 이들 반공간(counter space)은 의외의 낯선 장소

들이 아니다. 요양소와 매음굴, 묘지, 극장, 시장, 술판, 멋진 공터, 휴양촌, 모텔이 모두 ‘장소 바깥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고, 맞설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소들. 우리가 수시로 오르내리는 계단이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 거리 주변의 카페들, 잠깐 들른 영화관 등에서 푸코는 바슐라르의 글쓰기를 연상시키는 ‘헤테로토플로지(heterotopology)’를 수행한다(푸코, 2014).

푸코의 이런 공간적 사유와 방법론을 다시 세르토가 잇는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오른 이유다. 그는 9.11로 사라져 버린 이 빌딩의 꼭대기를 새로운 조망, 다른 의견 산출의 장소로 가져간다. 반사유의 헤테로토피아로 취한다. 고층빌딩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도시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된다. 상승은 그를 바라보고 생각할 자로 변모시킨다. 도시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해준다. 110층 전망대에 서서 그는 현혹적인 월가를 내려다본다. 말 그대로 낮추어보며 원근법적 안목을 갖게 된다. 눈 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텍스트로 읽어 내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유럽을 공포에 빠트린 코뮌니즘이라는 ‘유령’의 실상을 〈공산당 선언〉에서 그 특유의 모던한 글쓰기로 풍자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 소책자에서 그는 ‘자유무역’을 다른 수많은 자유들을 밀어내는 자본주의 최종의 자유로 꼽았다. 그 자유무역의 자유를 상징하는 자본의 심장부에 올라 세르토는 말 그대로 엠파이어스테이트의 전경을 조감한다.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자본주의라는 끊임없이 폭발하는 우주를 읽어 낸다.

피스크는 이러한 세르토를 답습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 있었다. 세르토에게 도시 공간을 걷고 건물에 오르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배적 일상문화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사유의 조망권을 얻어 내기 위한 일종의 공간 실천이다. 전복적 기호학의 전술이다.¹⁶⁾ 자본의 지배 체제가 잘 보여 주지 않으려는 것을 직접 가 봄으로써 투명하게 인식하려는 특이한 전술로서의 산책이다. 물론, 조망권을 획득한 후 산책자는 다시 거리로 내려가야 한다. 마천루 사이의 복잡한 도로와 지지분한 골목, 감시의 시선들로 직조된 광장에서 산책자는 작동하는 권력과 지배하는 시선, 저항하는 희망들을 구체

16) 최근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건물 옥상이나 굴뚝, 전광판에서의 고공 농성은 ‘건물 오르기’의 또 다른 전술적 양상이다. 문화연구자가 상업적 스펙터클의 타위에 올라 시가지를 조망하면서 현실을 감지하고 사유를 개진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국가에 의해 내몰리고 선전매체에 의해 차단된 노동자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직접 현시의 장치로 변용시킨다. 재현되지 않은 현실을 보게끔 만들며, 드러나지 않은 현상을 공공연히 표출시킨다.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 대다수의 건물들은 상업적 한계를 갖는다. 스펙터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는 문화연구자와 노동자들은 사유와 행동으로써 그 축적과 외양의 건축을 정치적 사유 및 저항적 행위의 장치로 일시 점유한다. 정확하게 세르토가 말하는, 전략에 반하는 전술이다. 문화자본에 맞선 문화정지다. 이게 저항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표현 전술로서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의 씨앰엠 사태에서 체험한 바가 있다.

적으로 읽어 낸다. 그리고 다시 총체적 정리를 위해 높은 데를 찾아 오르는, 고공과 지상 사이의 왕복달리기를 반복할 것이다. 미시/거시, 상승/하강의 변증법. 그러기 위해 그는 도시를 빈번하게 출입하거나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스크 또한 시스템 전유·구조 변용의 즐거움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체제 내부에 거주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한다(Fiske, 1989b, p.204). 그렇지만 도시를 가끔씩 방문하고 타위를 드물게만 올랐을 피스크는, 이상하게도 대도시 초고층건물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금방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대중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린다.¹⁷⁾ 세르토가 지금은 테리로 해체된 세계무역센터에 올라 자본주의 제국의 도시를 독해할 공간적 실천으로의 산책을 사유했다면, 피스크는 시어스타워 꼭대기에서 자본주의 마천루에서조차 가능한 대중적 향유와 대항적 즐거움에 주목한 셈이다. 세르토가 거리로 내려가 수행할 산책의 의미화 실천을 고민했다면, 대중들에게 낙관하고 도심에서도 가능한 재미와 변용을 강조하던 피스크는 몇 년 후 급작스럽게 도시 공간에서 사라졌다.¹⁸⁾

낭만주의는 그렇게 과장된 낙관주의와 극단적 패배주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가? 피스크의 급작스러운 퇴거는 자본주의 현실로부터 분리된 감상적 조울증 환자의 불가피한 행동인 셈인가? 세르토가 자본주의 도시 연구를 지속·심화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따지고 보면 도시 공간 문화연구에서 세르토의 공적은 산책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데 그친다. 피스크는 그 책략 개념을 전수받아 현실에 적용코자 했다. 다만, 그 시선은 과잉된 낙관주의에 머물다 급작스레 과장된 비관주의로 역전되고 만다. 산책으로써는 극복 불

17) 명백히 세르토를 좇아 피스크는 미국의 세 번째 대도시인 시카고의 시어스타워(Sears Tower)를 오른다. 그곳에 서서 그 또한 도시에 관해 사유하고 세르토를 떠올리며 ‘대중적인 것’에 관해 사유한다(Fiske, 1989b). 자본주의 도시 문제를 지배 권력과 연관시키고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읽어 낸다. 높은 곳에 올라 읽는다는 것은, 바르트(Barthes, 1982)의 말대로,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넘어서 사물들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24쪽). 시어스타워는 명백하게 소비자본주의, 스펙터클 선전 그 자체다. 동시에 이 타위는 대중들에게 상승과 하강의 즐거움, 조망의 재미를 제공하는 건축물이 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망루에 오를 때 도시 조망의 권능을 시인 대중들은 갖게 된다고 피스크는 믿는다. 고도상승이 지닌 해방적 체험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며 다중이 즐기는 도시생활의 재미다.

18) 사실, 피스크의 한계는 세르토의 산책술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척시키지 못한 1980년대 말의 저작물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피스크는 세르토를 낭만적인 방식으로 응용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접수했다. 세르토의 사유를 연성화해 누드 해변과 쇼핑물의 게임 아케이드를 읽어 냈다. 그럼으로써 세르토의 전술 개념이 내포한 반 자본의 래디컬한 위앙스를 크게 해소시켜 버린다. 즐거움에 기초한 대중들의 공간 실천 기술, 재미를 통한 다중의 공간 참여 테크닉에 관심을 모은다. 대항의 가능성과 진복의 희망을 찾아내는 문화연구자, 기호학자의 도시 산책 전술은 결국 특정 장소 대중의 소비와 재미를 독해하는 작업으로 환원되고 만다. 피스크의 글쓰기는 나이브한 도시 공간 에세이로 전락한다. 그렇게 타워 관광을 ‘대중적인 것=정치적인 것’으로 풀이하던 그의 낭만적 시선은 불과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감시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분개, 도시 공간에 대한 묵시적 비판으로 뒤바뀐다.

가능해 보이는 체제에 절망한 그는 후배지로의 사적인 퇴거를 결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세르토가 틈은 도시 공간 문화연구 실천의 중요한 선을 끊어 버리고 만다. 도시에 오롯이 남은 문화연구자들은 어떻게 떠난 피스크를 대신해 세르토와의 끈을 새롭게 잇고, 그럼으로써 절망의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희망의 산책 전술을 갖고 변증법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피스크와 달리 일관되게 도심의 거주자로 살며 세르토와 차이 나게 대중의 공간 실천에 참여한 마셜 버먼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버먼(1982/1994)은 자본주의 문제를 정확히 마르크스(주의)의 시선에 따라 쫓는다. 마르크스를 모더니스트로 간주하는 그는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를 혁명적 역동성을 배태한 놀라운 혁신의 체제로 파악한다. 그의 책 제목이 말하듯이, 자본주의는 ‘현대성의 경험’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때의 자본주의 현대성의 경험이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 적은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린다”는 문구로 집약된다. 물론, 그 유동적 변화 능력은 자본의 축적을 위한 것이지만, 구질서 해체라는 측면에서 해방의 기회와 전복적 희망을 파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반동과 혁신의 양가적 가치를 지닌 자본주의다. 버먼은 그 양의성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간파하기 위한 중요한 태도 혹은 입장으로서는 변증법적 마르크스주의를 주창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현실의 양가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론의 세계에서 나와 현실의 세상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 텍스트를 접고 콘텍스트를 직접 체험하며, 그 실증의 결과를 글쓰기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자본주의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서 근접한다. 이 과업을 게을리 하면 마르크스주의자조차 자본주의 현실로부터 도태될 것이다. 자본주의 내 저항의 조건, 상황들로부터 분리되고 만다.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버먼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변모가 표출되고 융기하는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공간인 도시로 나선다. 세르토가 제안한 것처럼 그곳에 거주하면서, 산책을 실천에 응용한다. 직접 가보고 적는 것이다. 견고한 현실이 녹아내리기 전에, 그 녹아내리는 현장을 기억에 남긴다. 녹아내리게 만드는 힘과 조건들을 기록에 부기하며, 그런 해체와 폐허의 현장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과 저항의 대중 역능을 서사로 모출하기 위해서다.¹⁹⁾

구체적으로 버먼은 세르토가 일시 방문한 금융자본주의, 초국적 자본, 신자유주의 최첨단의 도시 뉴욕에 거주하면서 마르크스주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를 실행에 옮긴다. 현대

19) 버먼(Berman, 1999/2001)은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즘을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시장만능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보면서, 기꺼이 인간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 그람시가 말한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 사이에서 역동적 균형을 취하는 게 위기에 처한 인간의 삶에 관심 갖는 좌파 문화연구자의 입장이라고 제안한다.

성이 구축했고 탈현대성이 분리한 ‘인 랜드 엠파이어’의 슬럼에 거주하는 신좌파로서, 그는 자본주의 모더니티와 그 표현체인 대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문화 해체 및 생성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따라잡을 수 있다. 모험과 공포, 애매모호함과 아이러니를 지닌 도시를 오랫동안 탐구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피스크는 물론이고 세르토와도 대별되는 모습이다. 버먼은 대도시의 문화연구자다. 도심 한복판에서 그는 자본주의 모더니티가 초래한 급격한 도시(재)개발과 자본 지배의 공포를 직시하며, 또한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저항의 역설과 반발의 아이러니를 관찰한다. 자본의 지배는 동시에 대중의 저항을 낳는다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역사유물론을 고수한 채, 자본주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를 끈질기게 실천에 옮긴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엽 대도시라는 변화된 공간적 조건 속에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전통을 견지한 채, ‘현대 생활의 화가’를 칭송하고 스스로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를 실천한 보들레르를 좌파적으로 되살려 낸다. 포스트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서의 발터 베냐민 되기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더니즘이 초래한 ‘진보’의 악몽을 지켜 보고, 피해해 가는 도시 대중들의 삶 속에서 ‘문명’이 남긴 야만의 흔적을 적으면서, 폐허에서조차 역사의 새로운 구성 가능성을 의심치 않는 좌파 변증법적 문화연구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빗질하기. 그 일을 그는 “필자 자신의 현대적인 환경이자 필자의 생활에 형식과 에너지를 부여한 뉴욕시를 횡단”하면서 일상적으로 수행한다(버먼, 1982/199, 349쪽). 세르토처럼 다분히 사변에 치우치거나 피스크처럼 쉽게 절망하는 법이 없는 버먼은 현실이라는 역사적 층위에서 대중들에 대한 낙관적 철학을 견지한 채 글쓰기에 몰두한다.

버먼의 (반)자본주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가 이렇게 탄생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1950-1960년대 뉴욕시에 축조된 고가도로라는 현대적 건축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뉴욕시는 전혀 다른 도시가 된다. 고속도로 주변 버먼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브롱스 중심부는 10년 사이에 산산조각 나 버린다. 그가 함께 성장했던 이웃은 “도시적인 악몽-마약, 깡패, 방화, 살인, 테러, 버려진 수천 개의 건물, 쓰레기와 흩어진 벽돌들이 산재한 폐허”로 전락한다(버먼, 1982/1994, 362쪽). 자본주의 도시 개발의 공학은 공동체 공간 파산의 치명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법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뉴욕이라는 대도시를 가로지르고, 그림으로써 브롱스를 결정적으로 타 지역과 차단시키고 낙후시켜 버린 고속도로가 저항의 시대인 1960대에 들어 그 계토에서 성장한 지식인들의 사유 포인트, 작가들의 표현 대상, 활동가들의 공격 지점이 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는 집단의 외침이 되는 개인의 함성, 다시 말하면 교통의 핵심을 뒤엎고 거대한 엔진을 멈추게 하거나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추게 하는 함성의 공격을 받게” 된다(버

면, 1982/1994, 403쪽). 자본국가의 도시 개발 전략에 따라 설치된 도로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웃에서도 대중의 대항 전술은 여전히 작동 가능했던 것이다. 체제 전유, 자원 변용의 활동은 조직화된 운동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시멘트벽을 거대한 화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놀랍도록 다양한 상상력과 비전을 표출한 도시 벽화를 절망의 공간에 그려낸다. 세르토가 말한 공간적 실천, 의미화 실천의 활동이다. 도심의 기호학적 유격전(술)이다. 요컨대, 도시 대중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완전히 패배하는 법이 없다. 위기 상태에서조차 “일상적인 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제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버먼, 1982/1994, 423쪽). 모퉁이를 돌아서면 금방 조우할 위험의 조건에서 펼치는 자기 보호, 공간 보존의 창작 활동이다.

세르토가 사변적으로 전개하고 피스크가 일시적으로만 수행한 자본주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를 버먼은 오랫동안 거주한 뉴욕 브롱스에서 꾸준히 지속한다. 세르토나 피스크가 자본주의를 언급하면서 막상 호명하지 않고 배제시킨 마르크스를 당대의 역사적 현실로 불러내면서다. 그가 보기에, 현재 우리가 마르크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의 해명이나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작업을 위해서다. 마르크스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은 근대적 삶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이 모순들 속으로 걸어 가는 좀 더 분명하고 깊숙한 길이다”라고 버먼(1999/2001, 201쪽)은 주장한다. 자본에 의한 사회 공간 폐쇄를 고발하고 공적 영역의 감시 통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순이 초래하는 저항의 아이러니와 희망의 역설을 바로 이곳에서 찾아내고 발굴하기 위해 도시 공간 문화연구는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 모순들을 넘어서는 길은 근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돌파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별거벗은 채, 모든 종교적, 미학적, 도덕적 후광과 감상적인 베일을 벗긴 채, 우리의 개인적 의지와 에너지에 의지한 채,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착취하며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갈라놓은 바로 그 힘을 통해 우리가 다시 모여 있는,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최대한 확장해 새로운 인간적 가능성들을 붙잡고, 사나운 근대의 공기가 변덕스럽게 우리 모두를 헤집고 지나갈 때 우리를 단결할 수 있게 해주는 정체성과 상호 연대를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서(버먼, 1999/2001, 108쪽).

버먼의 마르크스주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에는 세르토나 피스크에게서 찾기 힘든 자

본국가 도시 공간 개발의 구체적 역사성과 자본주의 도시 살해의 체계적 폭력성이 생생히 담겨 있다. 동시에, 그런 재난과 상황에서도 완전 말살되지 않는 대중들의 생활력과 예술성, 문화정치적 활약상들이 흥미롭게 묘출된다. 피스크의 절망적 시선이 포착하지 못한 현실의 희망 메시지다. 버먼은 아직도 야만의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옛 거주지를 찾는다(Berman, 2010). 그럼으로써 계속 쇠신하는 자본주의 도시 개발 및 신자유주의 공동체 파괴의 양상과 더불어 이에 맞서는 대중사회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도시 공간에 집적된 자본주의(후기)현대성은 그에게 폭력의 공포와 함께 삶의 희망을 제시한다. 바로 이런 “삶에 대한 연구야말로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중대 사안 가운데 하나가 아니던가?”라고 그는 반문했다(버먼, 1999/2001, 13쪽).

이에 덧붙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봐야 한다. 이런 도시 생활 현장 참여 관찰 연구야말로 마르크스주의(미디어)문화연구가 추구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작업을 멈추어 버렸는가? 세르토가 제시하고 피스크가 잠시 수행했으며 버먼이 지속 중인 도시 미디어 문화연구를 왜 더 이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가? 세르토처럼 산책이라는 공간적 실천의 개념을 신선하게 내놓거나 피스크와 같이 도시에 절망하여 과격하게 되거해 버리지 않으면서도, 버먼을 따라 위기의 도시에 머물며 성실히 희망의 단서를 찾지도 않는다. (미디어)문화연구 세 선학(先學)의 유산을 전향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채, 그들이 고민한 사유와 행동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잊지 않으면서, 미디어와 텍스트의 편협하고 안전한 동굴로 피신해 버렸다. 자본국가의 도심 지배와 대중문화의 위협 사태를 결과적으로 방기한다. 미디어 문화연구의 탈문맥화는 바로 이 유포의 순화된 표현에 다름 아니다.

6. 나가며: 고현학, 생명 위기의 도시 현실 참여를 위한 문화연구 방법론

도시는 21세기 대중교통의 주요 공간이자 대중문화의 핵심 장소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경제적 사건과 삶을 탈취하는 사회문화적 재해가 유발되는 곳이다. 삶을 보존하고 인명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진행되는 투쟁 지점, 항거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도시는 포스트모던 자본주의를 표현하고 위험사회의 문화를 재현하며 대중의 정치를 매개하는 중요한 매체다. 현실문화 독해와 이해, 비판과 생성을 책임진 현실 문화연구(자)의 관심 대상, 참여 표적이 된다. 바로 그 핵심 사업의 부진과 미디어 문화연구의 탈맥락화 위기는 과연 별개의 일일까? 탈맥락화는 문맥을 고려한 텍스트 연구 태도의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닐지 모른다. 현실의 장소이자 문화의 공간인 대도시의 연구를 소홀히 하고, 그럼으로써 도시 대중들의 삶, 대중문화의 위험 상황을 방기한 데서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최근 앤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 2002/2005)가 재미나게 이름붙인 ‘메트로마크주의(metromarxism)’ 미디어 문화연구 전통의 재정립과 탈맥락화 위기의 극복을 위해, 간과된 말년의 피스크로 돌아갔다. 그가 시도한 도시 연구의 의의와 그가 남긴 도심 산책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피스크에 앞서 세르토가 강조한 공간적 실천의 사유, 피스크 이후 버먼이 고수한 마르크스주의 도시 공간 문화연구를 나름 깊이 살펴보았다.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의 형성에 크게 영향 끼친 피스크와 시대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밀접히 연관된 두 사람을 함께 검토한 것은, 한국 도시 미디어 문화연구 재구축을 위해 이들을 일종의 이론적 삼각대로 삼기 위해서다. 물론 보다 튼실한 도시 미디어 문화연구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시 문제에 천착한 안팎의, 오랜 기간에 걸친, 예술과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가로지르는, 훨씬 광폭의 사유들을 적극 참조해야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피스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를 내세운 현실 콘텍스트 기피의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버먼과 세르토가 필요한 것은, 도시의 위기 현실로 나가자고 설파하고 직접 걸음 한 이들을 통해 피스크에서 끊어져 버린 도시 공간 미디어 문화연구를 일정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다.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전통 복원의 중요한 기둥이 된다. 이 연구가 피스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세르토와 버먼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룬 이유다. 특히 버먼은 절망에 빠져 버린 피스크와 달리, 희망을 오직 사

20) 여기에는 이미 언급된 보들레르 외에도 모네를 비롯한 프랑스 인상주의에서부터 영국의 도시 노동 계급의 상태에 관해 쓴 엥겔스, 〈일방통행로〉와 〈아케이드 프로젝트〉 등의 저술로 최근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은 베냐민은 물론이고, 그가 사상적으로 크게 기댄 철학자 짐멜과 저널리스트 크라카우어, 그리고 일본에서 고현학을 창안한 건축가 곤 와지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빌린 고현학을 식민지 근대의 도시 경성에서 직접 실험한 이상과 박태원 등의 소설, 에세이 또한 목록에서 빠트릴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한국 도시 대중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 조세희와 김소진, 공선옥 등의 작가들도 제외될 수 없다. 한편, 서구 영화계를 살펴보면 경제 불황의 시기 도시 노동 계급의 비참을 섬뜩하게 그린 영화 〈쿨레 밤페(Kulhe Wampe)〉를 만든 브레히트에서부터 같은 시기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한 요리스 이벤스(Joris Ivens), 르네 클레르(René Clair),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에서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의 유명한 네오리얼리스트들, 1950-19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 전통을 이끈 고다르(Godard) 등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베르토프(1984)는 ‘세계의 코뮤니스트 해독(the communist decoding of the world)’을 키노아이(Kino-eye)의 핵심으로 내세움으로써, 도시 공간 시각 문화연구의 철학을 선취한다. 한편, 최근의 좌파 이론가들 중에서는 신자유주의 도시 공간의 문제에 주목한 하비(Harvey)는 물론이고 이 글에서도 언급된 데이비스(Davis)에서 시작해 유행하는 근대가 양산하는 ‘인간쓰레기’ 처리의 주제에 천착한 바우만(Bauman), 도시에서 관찰되는 자본국가의 ‘예외 상태’에 주목한 아감벤, 폐허에서조차 희망을 찾고자 한 산책 중독자 솔닛 등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변적으로만 설파한 세르토와 차이가 나게, 비극적인 도심 현장 가운데서 희망을 찾으려 한 점에서 도시 미디어 문화연구의 재설계에 매우 유의미하다. 그의 말처럼 우리도 “극단적인 부정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가장 급진적인 희망의 이글거리는 불길”을 찾아내야 한다(버먼, 1999/2001, 195쪽).

‘극단적인 부정’을 자본국가의 극단적 위기 현실, 대중생활의 극단적 위험 사태로 번역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15년의 파경 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재난 사회, 영원한 세월호 상태는 그 극단적 조건 자체다. 우리는 ‘옴폭 파인 도시(hollow city)’의 거리와 광장, 이웃을 상대로 산책의 전술을 펼치면서 폐허의 지도를 그리고, 그곳에서 표출되는 삶, 즉 문화의 다양한 현상들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Solnit, 2000). 소외와 사물화, 멸절과 실종, 선전과 지배는 물론이고, 저항과 전복, 희망과 생성의 기호까지도 동시에 읽어 내야 한다. 말 그대로의 위(협)기(회)의 신호들이다. 버먼은 “거리의 신호들을 읽지 못하는 한, 그 잘난 〈자본〉을 읽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버먼, 1999/2001, 235쪽)라고 썼다. 피스크와 세르토, 버먼의 작업이 모두 이 비상 신호 읽기의 모험에 해당했다. 어둠 속의 희망 찾기. 암울한 한국 현실 속 도시 미디어 문화연구의 좌표, 고현학의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말했듯, 이들 외에도 많은 이론가와 예술가, 창작자들이 도시 공간이라는 조건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체 왜 그렇게들 펜과 붓, 카메라를 들고 콘텍스트로 뛰쳐나갔는가? 왜 도심 한복판에서 글쓰기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저널리즘을 실천하며 사유해야 했는가? 혹, 일반화된 생명 위기의 현실, 삶의 영원한 재난 상황, 문화의 지속적 비상사태가 그들을 텍스트 바깥으로 계속해 호명해 낸 건 아닌가? 따지고 보면, 베나민이 도시 공간으로 걸어나가 그곳에서 역사철학을 사유하고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서두른 것도 바로 일방통행로라는 전체주의 비상사태가 도래한 때문이었다. 박태원과 이상이 고현학의 방법론을 빚진 곧와지로도 도심의 재난 발생 지점에서 충격적 각성 효과를 얻었다. 이 무수한 고현학자, 즉 도시 공간 미디어 문화연구자의 시선으로 볼 때, 도시는 그 자체 삶의 중계 지점이자 생명 현상이 진행되고 거꾸로 살인 현장이 벌어가는 거대한 미디어가 아니었을까? 한 순간도 눈을 떼 수 없는.

세월호로 상징되는 영원한 재난 상황, 파시즘의 위급한 비상 상황이 우리를 호출한다. 중대한 지적, 윤리적,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선배들을 좇아 위험한 세상으로 산책을 나설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학술의 세계 내부에 지금처럼 머물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 노인 구분 없이 무수한 삶에게 구조적 폭력과 체계적 탈취, 예외적 테러가 가해지는 세월호의 현실 조건은 결코 이론적 수사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보들레르(1964)가 말한, '예술가'와 '세계인'의 확연히 갈라지는 처신. 텍스트의 감옥에 갇힌 미디어 문화연구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심으로 탈주하는 불안한 산책자가 될 것인가? 파경 난 민주공화국, 파국의 대한민국은 중대한 결단을 요구한다. 어쩌면 정답지를 잡아드는 용기의 문제만 남았을지 모른다. 사막 쪽을 가리킨 니체와 달리, 야만의 시대 도심으로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 문화연구자 - 산책자 되기. 비상 시기의 도심고현학자 되기.

참고 문헌

- 강내희 (1995). <공간, 육체, 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 강수미 (2003). <서울생활의 재발>.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미선 (2012). <명동 아가씨>. 서울: 마음산책.
- 김민수 (2012). <이상평전>. 서울: 그린비.
- 김강 (2008). 삶과 예술의 실험실 SQUAT. <문화과학사>, 53권 봄호, 493-496.
- 김준호 (2010). 거리 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송 (1999).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진송 (2008). <기억을 잃어버린 도시>. 서울: 세미콜론.
- 김진송·엄혁·조봉진(편) (1992).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진송·엄혁(편) (1995). <공간의 문화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 남원석 (2004). 도시빈민 거주지의 공간적 재편과 함의. <문화과학>, 39권 가을호, 85-101.
- 류신 (2013).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서울: 민음사.
- 박철수 (2013).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서울: 마티.
- 박해천 (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자음과 모음.
- 박해천 (2013). <아파트 게임>. 서울: 휴머니스트.
- 반성완(편역) (1983). <발터 베냐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 서지영 (2013). <경성의 모던걸>.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신명직 (2003).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 이기형 (2007). 흥대 앞 “인디음악문화”에 대한 문화연구적인 분석. <언론과 사회>, 15권 1호, 41-85.
- 이기형·임도경 (2007). 문화연구를 위한 제언: 현장연구와 민속지학적 상상력을 재접목하기. <언론과 사회>, 15권 4호, 156-201.
- 이기형 (2008). 문화연구와 공간: 도시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학과 시학을 지리학적 상상력으로 그리고 자전적으로 표출하기. <언론과 사회>, 16권 3호, 2-49.
- 이성욱 (2004). <한국 근대문화와 도시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 이영준 (2011). <초조한 도시>. 서울: 안그래픽스.
- 임동근 (1999). <서울에서 유목하기>. 서울: 문화과학사.
- 전규찬 (2008). 치안의 스테이트와 저항의 스테이트, 그 사이. <문화과학>, 56권 겨울호, 277-291.
- 전규찬 (2008). 촛불집회, 민주적·자율적 대중교통의 비뻥. <문화과학>, 55권 가을호, 110-129.
- 전규찬 (2010). 지하철이라는 현대적 대중교통의 탄생. <언론과 사회>, 18권 1호, 153-188.
- 전규찬 (2014). 남산, 숨겨진 살인과 범죄의 공간. <언론과 사회>, 22권 4호, 5-53.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서울: 이매진.
- 정진열·김형재 (2011). <이면의 도시>. 서울: 자음과 모음.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서울: 또하나의 문화.

조이담·박태원 (2005).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서울: 바람구두.

홍성태 (2004).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서울: 궁리.

Bachelard, G. (1969). *The Poetics of Space*. Boston: Beacon Press.

Barthes, R. (1982). *Empire of Signs*. New York: Hill & Wang.

Baudelaire, C. (1964). *The Painter of Modern Life and Other Essays*. London & New York: Phaidon.

Berman, M. (1982). *All That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윤호병·이만식(역)

(1994). <현대성의 경험: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 서울: 현대미학사.

Berman, M. (1999). *Adventures in Marxism*. 문명식(역) (2001). <맑스주의의 향연>. 서울: 이후.

Berman, M. (2011). Falling. In M. Beaumont & G. Dart(Eds.), *Restless City* (pp.123-137). London & New York: Verso.

Buck-Morss, S. (2003). *Thinking Past Terror: Islamism and Critical Theory on the Left*. London & New York: Verso.

Butler, J. (2003).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 New York: Verso.

Butler, J. (2009).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 New York: Verso.

Castells, M.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A Crosscultural History of Urban Social Movement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vis, M.(1990).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London & New York: Verso.

Debord, G. (2004). *Panegyric*. London & New York: Verso.

de Certeau, M. (1988).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ske, J. (1989a).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Unwin Hyman.

Foucault, M.(2009). *Le Corps Utopique*.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Fiske, J. (1989b). *Reading the Popular*. Boston: Unwin Hyman.

Fiske, J. (1991). *Media Matters: Everyday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Harvey, D. (2006). *Spaces of Global Capitalism: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London & New York: Verso.

Merrifield, A. (2002). *Metromarxism*. 김성희·최남도(역) (2005).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난다>. 서울: 시울.

Michelson, A. (Eds.) (1984). *Kino-Eye: The Writings of Dziga Vertov*.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mithsimon, G. (2011). *September 12: Community and Neighborhood at Ground Zero*. 권민정(역) (2013). <9.12. 9.11 이후 뉴욕 엘리트들의 도시재개발 전쟁>. 서울: 물항아리.

Solnit, R. (2004). *Hope In the Dark: Untold Histories, Wild Possibilities*. 설준규(역) (2006). <어둠 속의 희망>. 서울: 창비.

Solnit, R. (2009). *A Paradise Built in Hell*. 정혜영 (역) (2012). <이 폐허를 응시하라>. 서울: 펜타그램.

Solnit, R. & Schwartzberg, S. (2000). *Hollow City*. London & New York: Verso.

투고일자: 2015. 01. 26. 게재확정일자: 2015. 03. 23. 최종수정일자: 2015. 03. 25.

Re-contextualizing Urban Cultural Studies in Crisis

Linking with Fiske's Later Criticism of the City

Gyuchan Jeon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is consisted of the thesis that the decontextualized limitation of media cultural studeis in Korea should be overcome by walking into and linking with today's urban crisis and everyday life. It proposes us to become the flaneurs who do not hesitate to go to, think of, and experience actively the city in crisis under the capital/state domination. It's conclusion would be that we must practice participation observation at the fields and thus recover the critical element of cultural studies writing, by entering into the city and seeing at the features of crisis routinely expressed and symptomatically appear in there. For and before this, the author will first of all pay attention to John Fiske in later period, who was merely perceived and falsely regarded as an active audience theorist. He will also review de Certeau from whom Fiske has borrowed the concept of tactics, and Berman who has further practiced the very spatial tactic. The paper is prepared so as to expand the ideas and thoughts of them who have gone beyond the boundary of text, audience and onto the context of urban space. It's goal is much more than rescuing, recovering Fiske's alternative trajectory. It tries to reconstruct the tradition of urban media cultural studies critically connected with the dangerous, life-threatening capitalist condition. Furthermore, by filling up the theoretical vacuum left behind disconnected and cut away from Fiske, it attempts to find a vision, prospect of cultural studies that will actively engage themselves dialectally with dangerous yet hopeful life of the city and its popular masses.

KEYWORDS decontextualization, urban space, tactics, flaneurship, spatial practice